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지하철에서 세운 새로운 팬데믹 시대의 승차 기록 발표

*지하철은 349만 7천 명의 승객을 실어 나름 -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 승객을 실어 나름*

*2021년 12월 9일 342만 1천명의 이전 팬데믹 기록 능가하고 2020년 3월 13일 349만 1천명의 팬데믹 이전 수치를 능가하는 기록*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지하철이 5월 5일 목요일 3,497,122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며 팬데믹 시대의 하루 승차 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에 따르면, 이 기록은 지하철이 342만 명을 실어 날랐던 2021년 12월 9일에 세운 이전의 팬데믹 시대 기록을 능가하고 2020년 3월 13일에 관측된 지하철의 유행병 이전 승객 수 수치인 349만 1천 명을 능가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복귀를 계속하고 우리의 지하철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모든 중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뉴욕시의 생명선이고 이 새로운 이정표는 뉴욕이 돌아왔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아졌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승객 수를 장려하기 위해, MTA는 요금을 더 저렴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새로운 요금 상한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OMNY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통한 주간 운임 상한제에는 "Lucky 13"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주 13번째 승차부터 시작하여 그 주 남은 시간 동안 지하철이나 버스의 모든 추가 승차권이 무료입니다.

또한 MTA는 고객이 시스템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국장 겸 CEO인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이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이 도시를 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우리의 OMNY 요금 상한제 옵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지사,

시장 및 NYPD와 협력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승객들은 이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New York City Transit) Richard Davey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승객들이 대중교통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차 운영자를 고용하고 돌아오는 승객을 위한 교통 시스템을 강화함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 열차의 빈도 증가, 그리고 정시 성능을 유지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도시를 이동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MTA Sarah Meyer 최고 고객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증가하는 승객 수는 뉴욕 시민들이 우리 도시의 팬데믹 이후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대중 교통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우려를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화나 결제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철 시스템에 주중 하루 평균 총 승객이 일반적으로 5백5십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뉴욕시 지역에 치솟으면서, 지난 2020년 4월 95퍼센트가 감소하여 하루 이용자 수가 3십만 명으로 하락하였습니다. MTA 직원들은 뉴욕시 역사의 가장 힘든 시기 동안 출근해야 하는 일선 의료진과 기타 필수 근로자들을 위해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